

JUVENILE TITLES

FICTION

제목 : A PINCH OF MAGIC
가제 : 마법 살짝
저자 : Michelle Harrison
출판사: Simon & Schuster Children's UK
발행일: 2019년 2월 7일
분량 : 352 페이지
연령 : 9 ~ 12세 시리즈



- * “마법과 엄청난 속도감이 더해진 즐거운 이야기” - 『The Polar Bear Explorers' Club』의 작가 알렉스 벨
- * “생존과 자유를 위한 숨막히는 모험과 용감한 주인공, 마법에 걸린 물건들, 끔찍한 위험들로 가득한 이야기의 중심에는 질투, 배신을 이겨내는 자매간의 사랑과 믿음이라는 아름답고 강력한 메시지가 담겨 있다” - 『The House With Chicken Legs』의 작가 소피 앤더슨

습지로 둘러싸인 외딴 섬 크로우스톤에는 여행자들이 묵을 수 있는 숙소가 딱 한 곳 있다. 그곳에서 언니 플리스, 동생 샬럿, 그리고 할머니와 함께 살고 있는 베티는 바로 집 앞 외에는 아무데도 못 가게 하는 할머니의 지나친 걱정이 늘 불만이다. 모두가 우스꽝스러운 복장으로 멋지게 꾸미고 다니는 할로윈 날, 베티는 할머니 눈을 피해 모험을 떠날 절호의 기회를 만들어보기로 결심한다. 샬럿까지 데리고 커다란 망토와 마스크를 쓴 복장으로 잠깐 놀다 오겠다며 집을 나선 베티는 며칠 동안 힘들게 모은 뺏삿을 꼭 쥐고 나루터로 향한다. 하지만 배가 출발하고 채 몇 분도 지나지 않아 도저히 믿을 수 없는 일이 벌어진다. 습지 한가운데 울렁대는 배 위에, 할머니가 나타난 것이다! 베티 코앞에 난데없이 나타난 할머니는 당장 배를 돌리라며 사공을 뺏달한다. 대체 어떻게 된 일일까? 오래 버르던 모험은 싱겁게 끝이 났지만 이 사건을 계기로 베티는 집안 대대로 150년간 전해온 놀라운 비밀을 처음으로 알게 된다. 마법과 신기한 물건들에 관한 비밀은 베티가 그토록 바라던 모험으로 세 자매를 이끈다.

사실 베티 가족이 크로우스톤 섬에 살아야만 하는 이유는 따로 있었다. 세 자매의 아버이자 할머니의 외동아들인 바니 위더신스가 크로우스톤 섬에서 가장 큰 건물이자 가장 흉흉한 건물인 교도소에 갇혀 있기 때문이다. 엄마는 이제 여섯 살인 샬럿이 태어나자마자 세상을 떠났고 유일하게 남은 아빠는 솔직히 다정하지도 않았고 부지런히 일을 열심히 하는 타입도 아니었지만, 범죄를 저지를 만한 사람은 아니었기에 느닷없는 감옥 행은 모두에게 충격을 안겨 주었다. 베티는 일년에 몇 번씩 할머니, 언니와 함께 5년 형을 선고 받고 총 네 개의 높은 탑으로 이루어진 감옥

에 갇혀버린 아빠를 찾아가서 만나곤 했지만 아빠는 어린 딸들에게 못한 모습을 보이기 싫어서인지 한사코 면회를 거부했다. 이제 2년 8개월이 지났고, 다시 2년 넘는 시간이 더 흐를 때까지 자매와 할머니는 그곳에서 아빠를 기다리면서 술집 겸 여행자 숙소를 운영하며 살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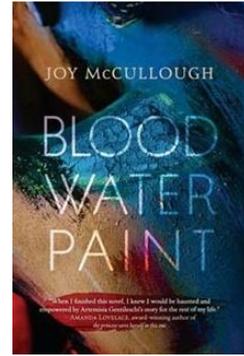
이제 열세 살이 된 베틀리는 크로우스턴 섬 외에 다른 곳은 한 번도 가본 적이 없고 본 적도 없어서 날이 갈수록 궁금증은 커져만 갔다. 배를 타면 다른 지역에 얼마든지 갈 수 있는데, 할머니는 절대 허락해주지 않았다. 베틀리에게는 이렇게 집 근처에만 묶여 사는 것이 교도소에 갇혀 사는 것이나 다름 없다고 느껴질 뿐이었다. 그래서 과감히 몇 시간 모험을 떠난 것뿐인데, 기력도 없는 할머니가 공중에서 날아온 것처럼 배 위에 나타난 것이다. 뱃사공도 의아해하면서 분명히 나루터에서 태운 기억이 없는데 어떻게 왔냐고 물었지만 할머니는 묵묵부답이었다. 베틀리는 그 와중에도 할머니가 어딜 가든 절대 손에서 놓지 않는 낡은 여행가방을 들고 온 것을 보고 더 이상하다고 생각했다. 평소에는 할머니 말을 고분고분 들었지만 이번에는 그냥 넘어가지 않으리라 단단히 마음 먹은 베틀리는 어떻게 된 일이나고 끈질기게 물었다. 결국 할머니는 베틀리가 열여섯 살이 될 때까지는 숨기려 했던 워더신스 가문의 비밀을 털어 놓는다. 언젠가부터 집안 사람들 손에 들어온, 세 가지 마법의 물건들에 관한 이야기였다.

할머니가 결혼 선물로 받았다는 그 낡은 여행가방도 신기한 물건 중 하나로, 가방을 손에 들고 가고 싶은 곳을 외치면 순간이동을 할 수 있다! 나중에 찰리가 갖게 될 이 물건 외에도 플리스 언니에게는 금색 테두리가 입혀진 거울이 전해졌는데 이 거울을 들여다보면 다른 섬, 다른 지역에 있는 사람과 거울을 통해 대화를 나눌 수 있다. 마지막으로 베틀리에게 할머니가 건넨 마지막 마법의 물건은 나무로 된 인형이었다. 마트로시카처럼 하나를 열면 다시 좀 더 작은 인형이 나오는 이 인형은, 속에 머리카락처럼 개인적인 물건을 넣고 다시 선을 잘 맞춰서 꼭 닫으면, 그 물건의 주인이 투명인간이 되는 엄청난 마법이 일어났다. 대체 이 물건들은 언제부터, 누가 만들어서 워더신스 사람들 손에 들어오게 된 것일까? 베틀리는 처음에 신기하고 즐겁기만 했던 이 물건들이 먼 옛날부터 워더신스 집안에 내려진 무서운 저주를 풀 수 있는 유일한 열쇠라는 사실을 알게 된다. 저주를 풀 방법을 찾아 해매던 세 자매에게 아빠와 같은 감옥에 갇힌 미스터리한 수감자가 접근하고, 세 사람에게 자신이 도와줄 수 있지만 부탁을 들어줘야 한다며 거래를 제안한다. 사람들이 마녀라 부르고 곧 사형이 예정된 이 정체 모를 죄수를 어디까지 믿을 수 있을까? 아빠와 가족 모두를 구하기 위해 마법과 지혜, 용기를 모두 끌어 모은 세 자매의 흥미진진한 모험이 펼쳐진다.

<저자 소개>

미셸 해리슨(Michelle Harrison)은 일러스트레이션을 전공하고 도서 판매인, 편집 보조로 일하다가 전업 작가가 되었다. 데뷔작 『THE THIRTEEN TREASURES』로 2009년 ‘워더스톤스 아동 도서 상’을 수상했다. 이어 시리즈로 쓴 『THE THIRTEEN CURSES』, 『THE THIRTEEN SECRETS』와 『UNREST』를 발표했다.

제목 : BLOOD WATER PAINT
가제 : 핏빛 물감
저자 : Joy McCullough
출판사: Dutton Books for Young Readers
발행일: 2018년 3월 6일
분량 : 304 페이지
장르 : YA 소설



*** 올해 내셔널 북어워드 후보작**

- * “수치심에 묻혀 조용히 살기를 거부한 젊은 여성의 이야기를 열정적으로 풍성하게 묘사했다. 현재의 ‘미투 운동’과도 잘 맞아떨어지는 소설” - 「시카고 트리뷴」
- * “다 읽고 난 뒤, 주인공 아르테미시아의 이야기가 앞으로 평생 떠오르고 내게 힘을 줄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 베스트셀러 『The Princess Saves Herself in this One』의 작가 아만다 러브레이스

열두 살 때부터 화가인 아버지의 조수로 일을 시작한 아르테미시아는 열일곱 살이 되자 더 이상 보조나 견습생으로는 부를 수 없는 수준까지 그림 실력이 발전했다. 줄지 않는 빛더미, 언제 들어올지 모르는 의뢰를 기다리는 애타는 마음, 더 뛰어난 재능을 가진 사람들을 향한 분노를 삭히지 못하고 벌컥 화만 내는 아버지 오라치오는 딸의 비범한 실력을 절대 인정하지 않았지만 그가 완성하지 못한 그림들은 모두 아르테미시아의 붓 끝에서 작품이 되어 팔려나갔다. 물론 그림 한쪽 구석에는 오라치오의 이름이 들어갔고, 돈도 그의 손에 들어갔으며 ‘진짜’ 화가가 누구인지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작가는 1610년, 남자가 원하면 여자는 그게 무엇이든 순종해야 하고 여성의 사회 진출은 꿈도 꾸지 못하던 시절을 무대로 조용히 숨죽인 채 살기를 거부한 아르테미시아의 용감한 도전을 특별한 소설로 완성했다. ‘소설 속의 운문’ 형식을 취해 아르테미시아의 말과 독백처럼 전하는 이야기는 모두 운문으로 제시되고 어릴 때 세상을 떠난 엄마가 아르테미시아에게 들려준 성경 속 이야기는 산문으로 제시된 이 소설은 주인공이 부당하게 겪어야만 했던 상황을 덩덤한 듯 하면서도 날카로운 표현으로 생생하게 그린다. 운문이지만 까다롭고 함축적인 느낌보다는 대화체처럼 친숙하게 느껴지고 무엇보다 아르테미시아의 내면을 더 깊이 들여다볼 수 있는 표현들이 더 큰 공감을 불러 일으킨다.

처음에는 오라치오가 사용할 물감의 원료가 될 색소를 잘게 으깨고 부수는 단순한 일로 화가의 길에 들어선 아르테미시아는 거의 작업실의 불박이 가구가 되어 그림 작업의 모든 과정을 거의 다 도맡아 하는 수준에 이르렀다. 물감과 캔버스를 준비하고, 올바른 위치에 자리를 잡고 앉아 그림까지 그리는 딸에게 오라치오는 한 번도 칭찬이나 고마워하는 말을 해준 적이 없었다. 사사건건 이렇게 밖에 못 그리냐고 트집을 잡고, ‘오빠들이 있었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는 듣기 싫은 꾸밈이나 늘어놓고, 다시 술을 마시러 나가버리는 것이 아빠가 하는 일의 전부였다. 그리고

는 아르테미시아가 그림을 완성하면 투덜대며 자신의 이름을 써 넣고 의뢰인에게 팔았다. 아버지의 일을 돕겠다고 나서지 않았다면 수녀원에 보내질 운명이었음을 잘 아는 아르테미시아는 엄마가 들려주던 이야기를 떠올리며 매일 연습하는 절망 속에서도 곳곳하게 버텨낸다. 언젠가는 훌륭한 화가가 되고 말겠다는, 어쩌면 여자라는 이유만으로 불가능할지 모를 꿈을 포기하지 않은 아르테미시아는 어느 날 그림을 정식으로 배울 기회가 생기자 뿔 뜻이 기뻐한다. 아고스티노 타시라는 이 남자는 아버지의 지시로 아르테미시아에게 원근법을 가르쳐주기로 하고 마침내 본격적인 수업이 시작된다. 그러나 독학으로만 그림을 배워야 했던 아르테미시아가 기대 했던 것과는 전혀 다른 분위기가 형성된다. 아고스티노가 노골적으로 추파를 던지고 부적절한 접촉을 시도한 것이다. 아르테미시아는 당혹스러웠지만, 그가 자신을 ‘사랑’한다고 서슴없이 이야기하고 고집불통 아버지의 그늘에서 벗어나 자유롭게 살 수 있도록 도와주겠다고 하자 솔깃해진다. 어쩌면 이 또한 누군가를 사랑하는 방식일수도 있구나,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려 했던 아르테미시아는 그것이 능수능란한 협잡꾼의 단골 수법임을 뒤늦게 깨달는다. 진정한 사랑이라면, 맹수처럼 달려드는 그를 거부할 때 멈춰줄 것임을, 그러지 않고 본인이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 무력으로 짓누르는 행동은 결코 사랑이 아님을 잔인하게 깨달은 것이다. 아고스티노에게 겁탈 당한 아르테미시아는 상처투성이가 된 몸만큼 머릿속도, 마음도 충격과 고통, 수치심에 휩싸인다. 그러나 세상에서 가장 좋아하는 일, 그림을 그리는 일까지 이렇게 포기할 수는 없다고 굳게 마음 먹은 아르테미시아는 끝까지 싸워서 정의를 실현시키고 꿈도 꼭 붙들고 말겠다는 목표를 세운다. 엄마는 어린 아르테미시아에게 남자들이 힘으로 무엇이든 하려고 할 때 현명하고 슬기롭게 위기를 풀어간 수산나와 유디트의 이야기를 들려주었고, 이제 그 이야기는 아르테미시아가 다시 깨어나 움직이게 하는 유일한 힘이 된다. 여자를 무시하고 비웃는 세상과 남자들에게, 여자가 무엇을 어디까지 할 수 있는지 보여주겠다고 이를 악문 아르테미시아의 싸움은 그렇게 시작된다.

처음에는 아버지로부터, 나중에는 아고스티노로부터 모욕과 무시를 받는 여주인공의 극심한 분노와 절망, 거부감은 간결하지만 그래서 더 강렬하게 다가오는 시로 묘사된다. 작가는 아르테미시아가 겪는 가부장적인 억압과 성폭력을 구체적으로 묘사하는 대신 그러한 폭력이 남긴 정신적, 육체적인 상처와 정의를 바로 세우려는 시도를 무참히 꺾으려 하는 사법 제도의 고문과도 같은 불균형을 날낱이 드러내는데 더 초점을 맞춘다. 아르테미시아는 옛 거장들이 그림으로 남긴 성경 속 여성 영웅들을 향해 자신의 결심을 독백처럼 이야기하며 마음을 다지고, 결국 아고스티노가 실형을 받게 만드는 놀라운 성과를 거둔다. 그러나 아르테미시아 외에도 슬한 여성들을 짓밟은 고질적인 범죄자에게 징역 1년이라는 어처구니 없는 판결이 내려지는 것에서 당시의 사회 분위기를 더 생생히 느낄 수 있다. 성폭력과 성차별 문제를 매력적인 주인공을 통해 시로 묘사한 개성 넘치는 역사 소설이다.

<저자 소개>

조이 맥컬로프(Joy McCullough)는 노스웨스턴 대학교에서 연극을 공부하고 현재 시애틀에서 책과 극본을 쓰고 있다. 위 소설이 데뷔작이다.